

## 세계예수교장로회 총회, 손경호 목사 총회장 선출

세계예수교장로회(WPC: The General Assembly of World Presbyterian Church) 총회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소재 콘코드 힐튼 호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제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총 352명의 총대가 참석했다.

부총회장 손경호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황광호 목사(서기) 기도, 부총회장 유성환 장로의 성경봉독(렘1:7), 총회장 김정도 목사의 설교, 총회 총무 하요한 목사의 광고와 증경총회장 국남주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 준비위원장 김철 목사는 “목회와 선교 일선에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 내고 참석한 많은 총대들께 감사하다”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새 힘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새로 선출된 손경호 신임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총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교단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정성을 다해 섬기겠다”고 했다.

정기총회 총회 둘째 날에는 총회 산하 WMS 세계선교회 ‘선교의 밤’이 열렸다. WMS 이사장 나정기 목사(미주서부노회, 증경총회장) 사회로 시작된 선교의 밤은 이사



세계예수교장로회 47차 정기총회를 마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상원 목사(미주서부노회) 기도, 이사 안수잔 권사(가주노회) 성경봉독, 북가주노회 연합찬양대 찬양, 권순웅 목사(예장합동총회 총회장) 설교, 박무용 목사(GMS 증경이사장) 선교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권순웅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고 선교를 하게 하신다. 이런 리더는 영적, 사역적, 전인적 성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다”고 말했다.

이어 권 목사는 “총회도 선교하는 총회로 사도행전적 총회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롬·부흥’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 집

에 가서 평강을 빌어주는 예수님의 전도로 해야한다. 성장이나 상급을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살롬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전도다. 하나님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복음 선교의 부흥 중심에 성령충만의 능력 받은 WPC WMS를 리더로 세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무용 목사는 ‘선교 특강’을 통해 “7가정의 선교사 파송이 우연이 아니며 WPC는 세계선교중심의 WMS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위기의 시대에 미국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엮는 복음운동, 선교운동의 중심에 있다. 특히 가톨릭의 여성인 중남

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WPC WMS로서, 세계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총회 선교사 파송식에서는 나정기 목사 서약, 총회장 손경호 목사 파송장 수여, 예장합동총회 서기 고광석 목사 권면과 전 미주노회 복구위원장 허활민 목사의 격려사, 그리고 증경총회장 백남선 목사의 축사, WMS 이사 강은덕 목사 선교헌금, 목사부부 중창 특송, WMS 이사 서보천 목사 경과보고 및 광고와 파송 선교사들을 위한 통성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WMS는 파송 선교사들에게 각각 선교후원금을 전달했다.

나정기 목사는 네팔 등 오지로부터 총회에 참석한 선교사 5명에게 각각 선교후원금을 전달했다. LA사랑의교회는 선교사들에게 잠시나마 쉬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섬겼다.

‘WMS 선교의 밤’은 WMS 증경이사장 이규보 목사 축도를 마쳤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당동 합동총회 권순일 총회장과 고광석 총회 서기를 비롯한 백남선, 박무용 증경총회장 등이 친선사절단으로 참석하여 격려하기도 했다.

김민선 기자



©UMC 노스텍사스 연회

지난 2년 동안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탈퇴 승인된 교회의 수가 5천 개를 넘어섰다.

UM뉴스(UM News)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UMC 장정 2553항에 따라 연회에서 탈퇴 투표를 승인받은 교회의 수가 지난 6일

## ‘동성애 논란’ 美 감리교, 지난 2년간 5천 교회 이상 탈퇴

약 4,600개에서 9일 오전 5,321개로 늘었다. 이 숫자에는 2019년 이후 탈퇴 권한이 부여된 모든 교회가 포함돼 있지만, 지난해부터 탈퇴가 크게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약 2천 개, 2023년에는 현재까지 3,000개가 넘는 교회가 탈퇴 승인을 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탈퇴한 교회 수는 200개 미만이었다.

UM뉴스의 데이터는 2022년과 올해에 개최된 연례회의 보고서, 공개 저널 및 특별 연례회의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2019년 UMC 연회 특별 세션에서 대의원들은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공식 입장에 대

한 오랜 논쟁 속에 교단 탈퇴를 허용하는 절차를 만든 장정에 2553항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최근 열린 여러 지역 연회에서 수백 개 교회의 탈퇴를 승인하는 투표를 이뤄졌으며, 여기에는 캔터키 연회 286개 교회,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 113개 교회, 동부 오하이오 연회에 237개 교회가 포함됐다.

동부 오하이오 연회의 경우, 탈퇴 교회가 연회 전체의 약 3분의 1(36%)에 달하며, 414개의 교회가 연회에 남아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주의자들은 동성결합 축복과 동성애자 안수를 금지하는 장정을

변경하려 해 왔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실패했지만, 그들은 이 장정을 따르거나 시행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이는 보수주의자들을 크게 좌절시켰다.

2020년 초, 신학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UMC 지도자들은 그해 총회에서 보수적인 감리교인들이 UMC를 떠나 그들의 교단을 창설할 수 있도록 2,500만 달러를 할당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계속되는 지연에 대응해 보수주의자들은 지난해 세계감리교회(GMC)를 출범시켰고, 많은 UMC 탈퇴 교회들이 여기에 합류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미주크리스천대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가져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 2023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10일(토) 오전 10시 30분 개최됐다.

신학대학교무처장 진건호 박사의 인도로 진행된 졸업예배는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경환 목사의 기도, RPCA 총무 김선광 목사의 기도, 에버그립 여성합창단이 특송, 박사원장 고영준 목사의 말씀선포, 남가주여성목사회 회장 박정희 목사의 헌금기도, 나눔교섭김교회 남성중창단의 봉헌특송, 남가주여성목사회 수석부회장 김인숙 목사의 광고, 남가주원로목사회 증경회장 이태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학위수여식에서는 B.A, M.Div, D.Min 등 총 19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다. 학위수여식은 대학원장 민준기 박사가 사회를 보고, 후원이사 서사라 박사의 기도, 실천처장 이학진 박사의 학사보고, 총장 엘리야김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 2023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박사의 학위수여, 미주향우연합회 총회장 사 이면양 회장, 한기총미주지역 대표회장 이정현 목사, 남가주교협 증경회장 한기형 목사, LA교협 증경회장 류당열 목사, 남가주한인목

사회 증경회장 엄규서 목사의 축사와 RPCA 증경총회장 김인철 목사, RPCA 총회장 박문석 목사의 권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고영준 목사는 “오늘 본

문은 선한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윤리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이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만난 자를 도왔다. 하지만 레위인 제사장은 못 본 척 하고 지나갔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내가 돕지 않음으로 그가 죽는다면 죄가 없다 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한 마디라도 예수를 소개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고영준 목사는 또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동지를 들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동지가 너무 낮아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우리 믿음의 동지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선 기자

##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으로 전문성 올릴 기회 열렸다

전문 엔지니어 없이 봉사자들의 섬김 만으로도 교회 음향사역을 전문성 있게 할 수 있게 돕는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드림미디어의 대표이자 기술팀장의 역할을 맡고있는 최병철 교수는 프로 음향엔지니어로, 과거 미주 내 100여 군데 이상의 한인교회들을 상대로 음향 관련 컨설팅하며 느꼈던 교회들의 필요들을 어떻게 채울 지에 대한 고민이 계기가 되어 드림미디어를 설립하게 되었다.

“음향은 단순히 소리만 잘 들리게 하는 작업이 아닌 각 사람이 다르게 지니고 있는 목소리톤에 따라 전달력이 돋보

일 수 있게 조정하고, 찬양팀이나 성가대의 경우 모든 소리의 조합이 ‘음악적’으로 조화되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고 그는 전했다.

드림미디어는 예배에 필요한 음향과 영상장비들을 전문적으로 설치부터 시작하여 세팅,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갈 수 있도록 교육까지 제공해주는 회사이다.

이외에도 영상예배, 장비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태블릿 앱을 통해 강대상이나 한자리에서 조명, 음향, 장비들을 모두 컨트롤 할 수 있게 하는 solo control system 설치 서비스 등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

한다. 최병철 교수는 “누구나 알만한 대형 교회들 외에 많은 한인교회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음향사역에 프로 엔지니어라 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 엔지니어가 없이도 예배에 맞는 최적의 퀄리티를 갖출 수 있게, 게다가 비용도 부담되지 않게 저희 드림미디어가 돕겠습니다.” 전했다.

드림미디어는 첫번째 방문과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드림미디어 홈페이지 dreammediaco.org 또는 이메일 dmediacontents@gmail.com을 통해하면 된다.

## 엄마의 마음 장학회 제9회 장학생 모집

엄마의마음장학회가 2023년 제9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2023년 현재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 허가된 풀타임 학생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박사과정은 제외된다. 서류가 미비된 서류는 장학생 선발 심사에 제외 될 수 있다.

장학금 종류에는 홀부모장학금, 신학생 장학금, 목회자 및 선교사 장학금, 일반장학금이 있으며 홀부모의 자녀에게는 특별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장학금 신청 접수는 5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우편으로 하면 된다. 우편접수 주소는 P.O.Box 6214 Buena Park, CA 90622 이다. 신청서는 엄마의마음장학회 홈페이지(mhsffe.blogspot.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민선 기자

## 도담재단, 창립 1주년 기념행사 가져

도담 포스터 재단(Dodam Foster Foundation, 이하 도담재단)이 지난 3일 오전 11시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에서 창립 1주년 행사를 가졌다.

70여명의 후원자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도담재단 이태범 담임목사의 기도, 김도민 목사의 격려, 최경애 도담재단 대표의 감사인사, 캄보디아 김창훈 선교사와 태국 문성철 선교사의 축하인사, 흥성아 집사의 바이올린 축하연주에 이어 8개 나라 선교사들의 영상축하인사와 후원학생들의 감사인사 영상이 있었다.

이후 도담재단 알버트 최 총 사무책임자가 1년간의 보고 및 계획을 발표하고 김낙인 목

사의 축도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도담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선교지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복음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꿈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양육선교재단이다.

도담재단은 지난 2008년에 시작되었던 “오하나재단”의 사역을 이어받은 재단으로 지난 2022년 6월에 창립됐다. ‘도담’은 ‘담당하고 아무진 아이’ 라는 뜻을 가진 순수한 우리말이다.

도담재단은 현재 8개 나라의 학생 약 300여명에게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후원은 주로 후원자와 후원학생 1:1 결연으로



도담재단 창립 1주년 행사

한 달에 20불 후원으로 후원비 10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시후원이나 행정경비후원도 가능하며 재능기부후원 참여도 가능하다.

도담재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Dodamfoster.org)를 방문하거나 714)882-0770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 원서접수 일정

원서 접수 마감: 7월 마지막 주  
수업시작: 8월 중

### 입학특전

- 통신(Online)수업으로 학위 취득 가능
- 유학생 1-20 발행
-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용자 (FSA)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수여
- 미국 우수 학교들과의 학점 교류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 입학문의

입학처 (백옥경 과장) : (714)525-0088  
MORE INFORMATION : www.gm.edu



### 교육인가기관



## 2023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 학사
- 석사
- 박사

- 신학 (B.Th.)
- 기독교상담학 (BACC)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CS)
- 교육학철학 (PhD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CS)

# 남가주헬로십교회 4대 담임, 김성계 목사 취임

남가주헬로십교회가 지난 11일 오후 5시에 창립 29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제4대 담임목사 김성계 목사의 취임식을 가졌다. C&MA 총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감사예배는 시카고, 샌디에고, 뉴욕과 한국에서 축하객들이 함께해 김성계 담임목사 취임을 축하했다.

김성계 목사는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와 Wheaton College에서 M.Div와 MA. 과정을 마치고 Biola 대학에서 Ph.D 과정을 밟고 있다. 뉴욕 순복음교회 전도사와 시카고헬로십교회, 시카고평안교회, 시카고 아도나이 교회 부목사를 거쳐 2022년 12월 1일부터 남가주헬로십교회 4대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다. 한국 대학생선교회(CCC) 캠퍼스 사역 중에 김지선 사모를 만나 슬하에 김하연 자녀를 두고 있다.

김성계 목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달려가겠다.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 성도들과 손에 손 맞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주님이

주신 가장 기쁨의 길, 순종의 길, 축복의 길을 확신하며 달려 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요셉 목사의 인도로 열린 1부 예배는 서철원 목사의 대표기도 후에 정재호 감독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를 제 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 감독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을 때 교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위로부터 받는 권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부음을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했다.

이어진 취임식은 정재호 감독의 인도로 김성계 목사 부부의 담임목사 서약과 남가주헬로십교회 성도의 서약 후에 공포 및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C&MA총회에서 담임목사 위임패를 전달하고 남가주헬로십교회에서 취임패를 김성계 목사에게 전달했다.

김희수 목사와 조종곤 목사가 편면을 전했다. 이희철 목사(갯스윌연합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또,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



남가주헬로십교회 창립 29주년 감사예배 및 제 4대 김성계 목사 취임식

교회), 김형균 목사(전 시카고헬로십교회), 송금섭 목사(전 시카고 아도나이교회), 류은영 목사(워싱턴중앙장로교회), 박해성 목사(남가주헬로십교회 3대 목사)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강정엽 집사의 특송 후에 김기수 장로가 광고하고 정재호 감독의 축도로 모든 예배가 마쳐졌다.

C&MA 교단은 140년의 선교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 87개국에 2만3,000여개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C&MA 교단은 전 세계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구원,성결,신유,재림의 4중 복음에 기초한 한국의 성결교단은 C&MA 교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선 기자

## 사우스베이목사회 김영길 목사 초청 특별세미나 은혜와 도전 선사

세 가정으로 시작,  
웃음 가득 35년 목회비결 나뉨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고창현 목사)에서 김영길 목사 초청 특별세미나가 지난 주(수) 오전, 남가주기쁨의교회(담임 목사 이황영)에서 열려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선사했다.

세 가정과 감사한인교회 개척을 시작해 35년간 목회해 온 간증을 전한 김영길 목사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기둥을 높이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수영로교회 창립자인 고 정필도 목사와 교제하던 당시 정 목사가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을 칭찬한다는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는 김영길 목사는 당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과연 나는 우리 장로들을 칭찬하고 사는가?’라고 반문하게 됐다.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지’라는 마음으로 살던 김 목사는 이후 마음을 먹고 칭찬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서 그저 ‘넵타이가 멋지다’라는 말로 시작했다고 멋쩍게 웃었다.

“개인적으로 칭찬하기 보다는 당회에서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장로들을 칭찬하다 보니 칭찬하는 대로 가더라. 나중에는 그 말이 진심이 되고 사



©사우스베이목사회 김영길 목사 초청 특별 세미나

랑하는 마음까지 생겼다. 장로들은 칭찬을 듣고 더 교회에 충성하고 도리어 겸손해졌다. 분위기가 바뀌자 당회를 해도 한 시간동안 웃다가 끝났다. 목회가 참 쉬웠다”고 언급한 김 목사는 그러나 교회 어려운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번은 교회헌금에 손을 대는 재정 집사가 있었는데, 헌금을 빼돌리다가 나중에는 대법해져서 수표까지 빼돌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목사가 그를 조용히 불러 사실을 밝히자 집에서 3만불을 가지고 왔다. “앞으로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 싶었다 싶은 금액의 두 배를 복구하라”고 조용히 타일렀고, 그는 매달 천불씩 보내왔고 결국 18만불을 갚았다. 김 목사와 두 명의 장로만 이 사실을 알고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함구하게 했는데 나중에 교인

들이 이 소식을 알고 교회에 훈훈한 미담으로 남았다.

이후 그는 교회 건축 이야기와 후임 목사 청빙 이야기를 풀어 놓으며, 이민 목회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몸소 깨달은 목회 경험과 더불어 그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은퇴 이후 5년간 미 전역 어디라도 요청이 있으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가서 부흥회와 집회로 섬기고 있는데 설교 세미나를 통해 온 교인이 설교에 단번에 집중하게 하는 노하우도 아낌없이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길 목사는 “작은 교회라서 부흥회 강사를 모시기 힘든 교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방긋 웃었다.

김민선 기자

## 사랑의캠프 4년만에 완전대면으로 열린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이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캠프’를 오는 6월22일(목)-24일(토)까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사랑의캠프는 팬데믹 이후 4년만에 완전 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제를 ‘축제’란 의미의 ‘FIESTA’로 정했다.

캠프 첫날은 CSU Long Beach에 도착해 심상은(갈보리선교회 담임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부이사장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이 거행된다. 둘째날은 참가자들을 성인팀과 아동팀으로 나누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수영, 장기 자랑, 댄스파티 등이 이어지며, 특히 멕시코 등 라틴 문화를 배워보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 날은 특별 공연과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가진 후 폐회예배를 끝으로 2023년도 사랑의캠프가 막을 내린다.

한편, 이번 사랑의캠프를 위해 많은 밀알가족들이 기도와 펀드레이징 물품판매로 성원했으며, 특히 재외동포재단에서도 후원을 힘을 보탤다.

김민선 기자

# 기감 김찬호 감독 “NCCK 탈퇴운동, 더 확산돼야”

지난 4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중부연회가 'NCCK·WCC 탈퇴안'을 전격 가결한 가운데, 연회 수장인 김찬호 감독이 “기감의 NCCK 탈퇴 운동이 더 확산돼 이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12일 오후 2시 인천 만수교회에서 중부연회가 주최한 ‘교회 입장에서 바라본 WCC·NCCK 대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두 단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몇 달 전 기감 목회자 및 평신도 4,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목회자의 60.3%, 평신도의 70.7%가 NCCK 즉각 탈퇴를 지지할 정도로 교단 내 NCCK에 대한 반대 여론은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지도부가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중부연회가 총대를 메고 나서는 상황이다.

김 감독은 “프로테스탄트가 천주교로부터 나온 이유는,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고 성모를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타락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교단이 신사참배에 참여했지만, 믿음의 거룩함을 유지한 조상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를 거부해 감옥에 끌려가 죽임당했다”며



기감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은 “탈퇴 운동이 더욱 확산돼 감리교 전체가 NCCK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연합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큰 문제다.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중부연회의 탈퇴 결의는 압도적이었다. 일부는 NCCK가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것이 거짓뉴스라고 하지만, 그것을 반증하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성도의 눈물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연합기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지키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존

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본인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 적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홍정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가. 비단 사무총장만이 아닌 모든 회원교단의 책임”이라고 했다.

미국은 동성애 문제를 둘러싸고 연합감리회(UMC)를 탈퇴한 교회 수가 무려 5천 개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김 감독은 “동성애 지지와 반대를 두고 반쪽이 된 미국 감리교의 현실은 곧 한국 감리교에 닥칠 미래”

라고 했다.

그는 “NCCK 탈퇴를 두고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감이 NCCK 설립에 공헌한 가장 큰 교단인데 이권을 포기할 것인가’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리와 돈의 문제가 아니다. UMC에서 탈퇴하는 교회들은 성경의 가치를 위해 재정을 다 버리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4년 전 기감 평신도로부터 NCCK 탈퇴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때도 NCCK는 ‘개혁하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모든 탈퇴 운동을 중단했었는데, 4, 5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가 없다. NCCK 내부에서 개혁하겠다는 이야기에는 회의적이다. 탈퇴 운동이 더욱 확산돼, 기감 전체가 NCCK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감 중부연회 평신도는 이날 중부연회의 탈퇴 결의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3년 4월 11일 제82회 중부연회에서 결의하고 2023년 5월 9일 제179차 실행부회의에서 재결의한 NCCK 및 WCC 탈퇴안에 대해 “연회원들의 의견 제출과 성경의 가치 수호로 존중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 한동대, 미국 기독교 명문 켈빈대와 MOU 체결



한동대와 켈빈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동대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지난달 31일 미국 켈빈대학교(Calvin University)와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2001년 협약에 이은 것으로 교육, 연구, 학술 영역에서 △교수진 및 학생 교류 △공동 연구 수행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간행물 및 정보 교류 △기타 연구 활동 등의 협력 활동을 확대하게 된다.

한동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 위버 보어(Wiebe Boer) 켈빈대학교 총장, 박해경 한동대학교 학사부총장, 에릭 엔로우 한동대학교 국제화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최도성 총장은 “앞으로 기독교 대학들이 더욱 더 협력하며 함께 나아

가는 것이 필요하며, 켈빈대학교와 한동대학교는 이러한 협력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버 보어 총장은 “혼자 달려가면 더 빠를 수 있으나, 함께 달려 가면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다”는 나이저리아 속담을 인용하며 “양교가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화답했다.

켈빈대는 1876년도에 설립된 미국 미시간 주 소재의 기독교 명문 사립대학이다. 재학생 3,200여 명 규모에 100개 이상의 학과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동대학 켈빈대는 2001년도 첫 교류 협정 이후 학생 및 교수 교환,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영 기자

## 명성교회, 총회 장소 재고 요청... “아직 때 아냐”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가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총회의 이순창 총회장에게 올해 제108회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통합 측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에 따르면, 지난 9일 명성교회 김종식 수석장로가 이 총회장을 만나 “명성교회는 총회의 요청에 오랜 기간 기도하며 심사숙고한 결과,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명성교회의 공식 입장을 두고 깊이 고민하며 며칠간 기도해 보겠다”답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통합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6일 부천 좋은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에서 제 108회 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해당 교회에 보내기로 했었다. 임원회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건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라고 한다.

여기에 교회 측이 수락하면 총회 장소가 결정되는 것이었지만 결국 수락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명성교회 측이 소위 ‘세습 논란’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교단 안팎에서 여전히 굵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가운데 명성



©명성교회

교회에서 교단 총회가 열릴 경우 자칫 논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총회 장소와 관련된 임원회 결의가 있는 후 통합 측 서울노회는 총회 장소 선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 노회는 “언젠가는 명성교회에서 한국교회가 다 같이 모여 함께 찬송하며 울고 웃고 해야 할 날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정서, 수많은 목사 장로 교인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교단 서울강남노회 측도 올해 교단 총회의 명성교회 개최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재고를 요청했다.

김진영 기자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정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안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준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 조이스 리, M.D.

## 진료과목

###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박사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 “세기총 美 법인 설립하고 국내 회관 마련할 것”

## 방한한 전기현 대표회장, 기자간담회서 비전 등 밝혀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제11대 대표회장인 전기현 장로(미국 샬롯장로교회)가 방한해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기총의 비전 등에 대해 밝혔다.

전 대표회장은 특히 미국에 세기총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미국 주류 사회에 세기총을 알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사역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 그러는 한편, 국내에도 세기총 회관을 마련하는 등 설립 10주년을 보내고 새 10년을 향해 가는 세기총의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전 세계에 흩어진 750만 디아스



세기총 대표회장 전 기현 장로

포라와 함께 국내외에 복음을 전파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세계 각처에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글로벌 기도회를 지속할 것”이라며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세계 교회를 변화시키며, 다문화가정과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교회 연합을 이루는 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표회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앞으로 1년 간 세기총을 이끌게 됐다. 주님께 충성하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세로 사역할 것”이라며 “세기총이 지난 10년 동안 그 기반을 잘 닦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를 토대로 더욱 세계선교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과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통해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외에도 국내 다문화 가정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전 대표회장은 미국의 섬기는 교회 헌당을 위해 820만 달러(한화 약 106억 인) 이상을 헌금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 살던 집도 내놓고 17년 동안 사무실에 살면서 교회 빛을 모두 갚았다고.

이 외에도 그는 미국에서 약 13만2천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 대표

회장은 돈을 아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의 책들을 모았다. 1년에 5만2천여 명이 이 도서관을 찾는다고 한다.

지난 4월 27일 미국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에서 열린 세기총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추대된 전기현 장로는 현재 샬롯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Chun Group, Inc.의 설립자, 사장 겸 CEO로서 공인회계사(CPA)로 1983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헤럴드 신문을 창간(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했고 다수의 학교에서 법학 관련 교수를 겸임했다. 또 Chun University를 설립해 초대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장로로 재직하고 있는 샬롯장로교회는 샬롯 지역 최초의 아시아인 교회이기도 하다.

##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더 자주 소그룹 활동

코로나 이후 성장하는 교회와 신앙 소그룹 활동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구촌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와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소그룹 참여 개신교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그룹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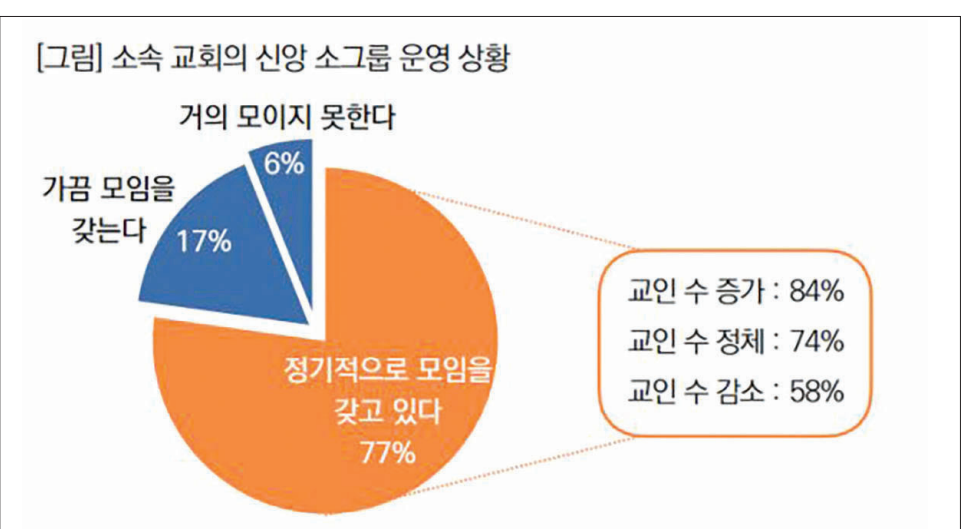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교회 내 신앙 소그룹의 모임 운영 현황을 물었더니 77%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일수록 이렇게 답한 비율이 84%로 높게 나타났다. 정제·감소하는 교회에선 ‘정기적으로 모인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74%, 58%였다.

소그룹 모임 주기는 ‘매주’가 64%로 압도적이었다고, ‘매월’ 17%, ‘격주’ 15%, ‘비정기적으로 가끔’ 5% 순이었다. 여기서도 성장하는 교회 교인일수록 ‘매주 모인다’는 응답률이 72%로 가장 높았다. 정제·감소하는 교회에선 이렇게 모인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6%, 54%였다.

소그룹 장소로는 ‘교회’가 64%로 가장 많았고, ‘가정’ 18% ‘카페 및 식당’ 16% 등의 순이었다.

소그룹 모임 방식은 ‘대면으로만’ 모인다는 답이 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면 기본, 비대면 병행’ 32%로 그 다음이었고, ‘비대면 기본, 대면 병행’과 ‘비대면으로만’은 각각 4%, 1%에 그쳤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는 ‘대면 모임을 못 할 경우 대안으로 온라인 모임을 하



©목회데이터연구소

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모임은 필요 없다’ 20%, ‘현장 모임을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19% 순이었다.

적정한 소그룹 모임 시간으로는 ‘1시간 내외’가 68%로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다음은 ‘2시간’으로 31%가 응답했다. 평균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정 시간을 ‘2시간’이라고 답한 비율은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서 34%로 가장 높았다.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 모임 적정 시간을 길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소그룹 편성 기준은 ‘연령’(59%)과 ‘지역’(55%)이 대부분이었다. ‘직업’(9%), ‘자녀 연령/학령’(7%) 등은 많지 않았다. 선호하는 신앙 소그룹 편성 기준도 ‘연령’(94%)과 ‘지역’(76%)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

소그룹 내 활동을 위한 교재나 유인물이 정기적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해선 절반인 50%가 ‘정기적으로 제공된다’고 답했다. ‘비정기적으로 제공된다’는 31%, ‘제공되지 않는다’는 19%였다.

현재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는 59%가 ‘정기적으로 제공된다’고 답해, 성장하는 교회가 ‘정제’(44%)나 ‘감소’(29%)하는 교회보다 교재나 유인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와 유인물의 형태로는 ‘교회에서 만든 교재’(57%)와 ‘담임목사님 설교 요약문’(4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그룹 활동 내용은 ‘말씀 나눔/성경공부’가 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제/친교’

67%, ‘삶을 나눔’ 59%, ‘예배’ 56%, ‘중보기도’ 51%, ‘교회 내 봉사활동’ 41% 등의 순이었다. ‘교회 외부 봉사활동’은 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가 ‘정제’ 혹은 ‘감소’하는 교회보다 소그룹 활동에서 ‘친교’와 ‘삶 나눔’을 비교적 풍성히 하는 경향이 높았다.

소그룹 활동자 대다수(90%)는 소그룹 모임에서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감동과 은혜를 느낀 때로는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가 64%로 가장 높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소그룹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때’(47%), ‘말씀 들을 때/말씀 나눔 때’(46%) 등의 순이었다.

다만 소그룹 내 깊은 나눔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미만(6개월 미만 28%+6개월~1년 미만 33%)이 60%였고, ‘2년 이상’이라 응답한 경우도 22%였다. 연구소는 “소그룹 구성 후 구성원 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데는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그룹 만족도는 ‘만족’ 89%(약간 47%+매우 42%), ‘불만족’ 7%(약간 6%+매우 1%)로 대다수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 활동 내용, 모임 빈도, 교제 제공, 리더 헌신도, 삶의 나눔 등 모든 영역에서 소그룹 지표가 뛰어났다”며 “소그룹이 잘 안되는 교회, 특히 소형교회에서 소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기장 70주년...강연홍 총회장 “교회 성장에도 눈 돌려야”



총회장 강연홍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총회장 강연홍 목사, 이하 기장)가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분당신교회(담임 윤교희 목사)에서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주제로 ‘새 역사 7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1953년 설립된 기장은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이날 예배는 이종화 목사(총회 선교위원회 위원장)의 인도로, 예배입례(입례연주: 국악선교회 예향), 성삼위 임재의 기원, 예배에 부름, 경배찬송, 참회의 기도, 침묵, 용서의 선언, 영광송, 이정훈 목사(감리교 성실교회)의 시편독송(시 90:3-6, 10-12), 김정옥 장로(여신도회전국연합회 회장)의 기도, 오용근 목사(총회 서기)의 성경봉독(창 50:15-21)·구본순 목사(서울북노회)의 수어 서신문 봉독(엡 4:3-4), 조수아 CCM

사역자의 특송, 설교, 성찬 예전, 평화의 인사, 장성수 장로(총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의 봉헌기도, 봉헌, 떡과 잔 의례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 순서에선 ▲Alan Hall 캐나다연합교회 부총무가 ‘기장 역사의 시작과 캐나다 연합교회’ ▲독일복음선교연대(EMS)가 영상으로 ‘기장 민주화운동과 독일교회’ ▲총회장 강연홍 목사가 ‘기장,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총회장 강연홍 목사는 “교회가 쇠락할 수 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우리가 겪은 일”이라며 “그러나 팬데믹 사태가 지나면서 교회들이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사회학에서는 일어서게 하는 힘을 ‘N 바이러스’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이 N 바이러스보다 한 차원 높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바이러스’라며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새로운 기운과 사명 그리고 바람이 일어나서 완전히 판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7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힘들게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지 모른다”며 “이 자리는 지나온 70년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새롭게 출발하며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지나온 70년의 세월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라와 민족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선교하느라 70년의 가시밭길을 눈물로 걸어왔다”며 “지금 이 나라가 조금 후퇴하는 듯하지만, 자유와 평등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교단이 모든 사명에 한 마음으로 희생·헌신적으로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면 교회 성장이다. 앞으로 달려갈 새 역사 70년은 우리가 교회 성장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며 “물론, 평화·통일·인권·환경·빈민·사회 운동 등은 필연하다. 앞으로도 이 모든 사역들은 감당해 내야 한다”고 했다.

강 목사는 “기장의 새 역사 70년을 바라보면서 N 바이러스 즉, 할 수 있다는 정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 위에 영적인 성령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가 펼쳐져야 한다”며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 역사 70년을 맞으면서, 주제 성구인 이 비전을 감사함으로 받아 큰 꿈을 꾸고, 어깨를 펴고 힘을 다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장의 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는 강연홍 목사의 감사기도, 결단찬송, 파송사(캐나다연합교회 Alan Hall 부총무, 총회장 강연홍 목사), 고덕환 목사(강원노회 원로목사)의 축도 순으로 모두 마쳤다. 예배 이후에는 선교대회와 기도회가 이어졌다.

장지동 기자

## JMS 정조은 등은 혐의 부인, 한 명은 인정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JMS 교주 정명석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정조은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정조은은 정명석이 성범죄 관련 수사를 받아 해외로 도피하던 시절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함께 도피생활을 하며 피해자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했고 2018년 출소 후에도 정명석이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콩 국적 피해자 A씨를 면담하고 측근을 통해 관리해 왔다”며 “2018년 3월과 4월 사이 집무실에서 정명석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라고 하며 정명석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민원국장인 B씨는 해외 도피하던 정명석에게 좋아할 만한 사람을 데려가거나 세뇌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A씨가 서울로 도망쳤다는 연락을 받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면담하며 정명석의 성범죄가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등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조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모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피해자에게 조언을 했을 뿐이며 정범의 고의가 없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실제로 범행을 막지 않았느냐는 부작위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국제선교부 국장이었던 피고인 D씨 측은 검찰에서 그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텍사스주지사, 미성년 성전환 수술 금지법 서명

미국 텍사스주의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투여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상원법안 14호(SB 14)는 사춘기 차단제, 성전환 호르몬 및 남성으로 식별하는 여성 미성년자의 이중 유방 절제술과 같은 의료적 개입을 금지한다. 또한 이러한 미성년자 시술에 대한 주정부 기금 사용을 차단한다.

이 법률은 "어린이의 성기, 염색제 및 내분비 프로필에 의해 결정된 생물학적 성별을 전환하거나, 어린이의 성별 인식이 생물학적 성별과 불일치할 경우,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법안은 5월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하여, 이달 2일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보수적 사회 옹호 단체인 '가족정책연맹'(Family Policy Alliance)의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인 어텀 레바는 CP에 "오늘 텍사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7년부터 아동 성전환을 금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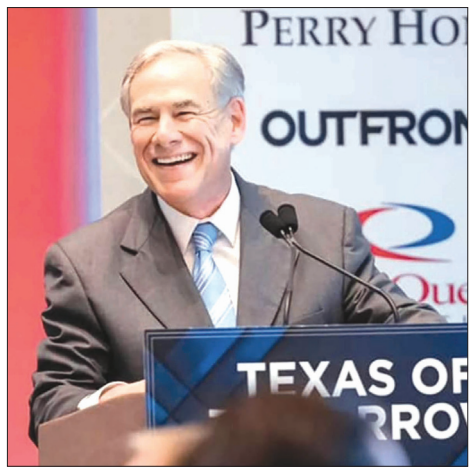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반면, '텍사스 트랜스젠더 교육 네트워크'((Transgender Education Network of Texas)의 에미 셸링 전무이사는 텍사스 주의회가 이번 회기에 추진한 상원법안 14호 및 기타 법안이 "트랜스젠더와 쿼어 텍사스 주민에 대한 야만적인 혐오 운동을 시작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동성애 옹호 단체인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텍사스 지부가 발표한 성명에서 셸링은 "의원들은 우리의 삶을 게임처럼 다루고, 자유를 밀실 거대처럼 취급하며 우리를 팔아넘긴다"면서 "이번 회기에 보여준 편협함에 의원들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도나 캠벨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지난 3월 국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료계 등 전문직이 환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아동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미국 전역의 최소 17개 주가 미성



지난 4월 14일 휴스턴 프리미어 비즈니스 연합 모임에 참석한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 © 그렉 에보트 페이스북

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이며, 그중 텍사스는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가장 큰 주이다.

텍사스 주의회는 민주당 의원들로 인해 의회 진행이 지연되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원에서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켈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공식 의견을 통해 특정 성전환 수술 및 개입이 "텍사스 가족법 제261장의 여러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아동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티 저널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어린이 병원이 11세의 어린이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행했다는 주장이 보도된 이후 제기됐다. 해당 병원은 2022년 더 이상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팩스턴은 오스틴 소재 델 어린이 의료센터(Dell Children's Medical Center)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텍사스주 검찰은 이 병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와 성전환 수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했다고 고발했다. 김유진 기자

## '게이 퍼레이드' 반대 설교한 美 거리 전도자, 경찰에 체포돼

### 리딩시, 무질서 행위 혐의로 연행...보석금 650만원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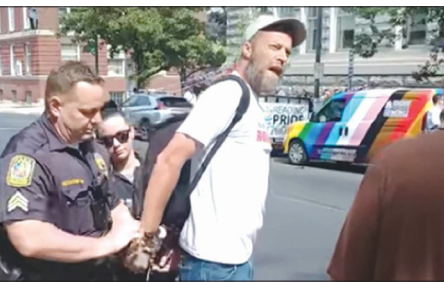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펼쳐진 게이 프라이드 행사에 반대하며 성경 메시지를 설교를 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사건은 3일 필라델피아의 리딩 시에서 6월 성소수자의 달(Pride Month)을 기념하는 행진 도중 발생했다. 이날 시청사 앞에는 여장을 한 남성 드래그 공연자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

촬영된 영상에는 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진 참가자들이 무지개기를 들고 거리 반대편에서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데이먼 앳킨스(41)씨는 현지 경관인 브래들리 맥클루어와 대화를 나누다가 '무질서 행위' 혐의로 체포됐다.

영상에서 앳킨스는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었고 경관은 그에게 "여기는 공공 재산"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앳킨스는 "공공 재산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하루를 보내게 하라. 여기는 공공 재산"이라며 행진을 문제 삼았다.

경관이 "알겠으니 그럼 존중하라. 그들이 하루를 보내게 해주라"고 말하자 앳킨스는 "누가 이들을 응원하는지 아는가? 바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리딩에서 열린 '게이 프라이드' 행사에서 경찰관이 거리 설교자 데이먼 앳킨스를 체포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라며 응수했다.

그 후 앳킨스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본문인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를 설교하자 경관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영상 속 군중들은 경관이 앳킨스를 연행하는 내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당시 영상을 촬영한 리딩시 주민인 매튜 웨어는 "주님께서 이 장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가"라고 밝혔다. 앳킨스가 체포되는 동안 웨어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며 그를 옹호했다. 그러자 경관은 웨어에게 다가와 "길 건너 편에서 모욕적인 말을 계속하면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앳킨스의 보석금은 647만원(5천불)로 정해졌으며, 보석금이 납부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앳킨스의 예비 심리일은 6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유진 기자

## 美 기독교선교연맹, 여성에게 목사 직함 '승인'

### 총회에서 57년만에 'CMA 신앙선언문' 새로 채택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 단체인 '기독교선교연맹'(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CMA)이 여성에게 목사 직분을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주 워싱턴주 스포캔에서 열린 CMA 연례 총회에서 투표 결과, 총회 대표단의 60%가 새로 개정된 'CMA 신앙 선언문'을 승인했다. 이번 투표는 단체가 1966년 이후 처음으로 신앙 선언문 갱신을 위해 치러졌다.

새 선언문은 지역 교회 지도부의 재량에 따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특정 사역 분야에서 '목사'(pastor)나 '성직자'(reverend)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CMA 산하 교회들은 여성을 목회자로 임명할 수 있지만, 남성 장로 직분이 필요한 원로 또는 담임 목사직은 제외된다.

이 단체의 미디어 관계 담당 이사인 피터 버고는 성명서를 갱신한 이유가 "미래 세대가 더 읽기 쉽고 연관되도록 언어를 갱신하고, 성별이 모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사실을 개정된 언어로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버고는 CP에 보낸 이메일에서 "투표 전에는 오직 남성 교역자만이 성직자로 임명될 자격이 있었고, 여성 교역자는 임명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두 과정은 동일한 신학적이고 영적 자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23년 총회에서 공인된 대표단의 투표로 명시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스포캔에서 기독교선교연맹(CMA) 연례 총회가 진행됐다. ©CMA 공식 페이스북

된 사역 자격을 충족하는 남녀는 모두 '안수를 받고 임명된' 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버고는 또 "미국 CMA 교회들이 여성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 가진 다양한 견해를 인정한다"면서 "어떤 교회들은 여성이 지도자인 자리 위에 세워졌지만, 다른 교회들은 여전히 '엄격한 보완주의적 입장'을 고수한다"고 했다.

그는 "총회는 모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일치하도록 지시하는 대신, 지역 교회 장로들과 이사회가 그들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 최선의 방침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러한 자유 덕분에 우리의 운동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강력하며 단결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CMA에는 미국 내 2천여 교회와 50만 명의 교인이 속해 있으며, 세계 70개국에서 700명의 사역자가 활동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 전문점

헤어 칼라  
**\$40** 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걸러낸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회현 손결하고 스니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사랑하시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저녁예배 오전 8:15) 새벽예배 (월요일) 오전 6시  
3부예배(저녁예배) 오전 11:30 (토-일) - 헌정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두고 이민2세를 복음화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영광을 증행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en 고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아메리카/아시아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3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서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종교동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보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slow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리타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까지)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a.com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gw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1부 7:30AM - 1부 09:00AM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침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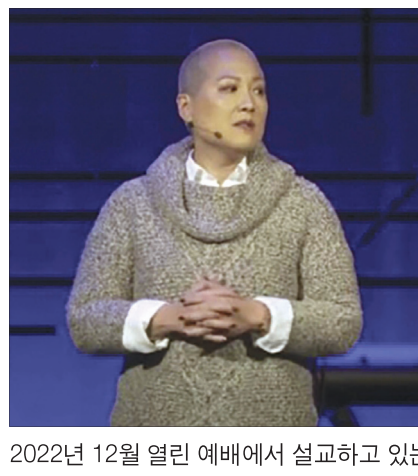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보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시애틀 퀘스트처치, LGBT 지지하며 ECC 교단 탈퇴



2022년 12월 열린 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퀘스트 교회의 게이 반동 담임목사, @YouTube/Quest Church

시애틀에 기반을 둔 대형교회인 퀘스트처치(Quest Church)가 성소수자(LGBT) 운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제명될 가능성에 직면하자 탈퇴를 발표했다.

이 교회는 보수적인 성향의 복음주의의 언약교회(Evangelical Covenant Church, 이하 ECC)에 소속돼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퀘스트교회의 게이 송 반동(Gail Song Bantum) 목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LG-BTQIA+ 형제 자매들의 급진적인 소속 추구"를 언급하며 21년 만에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한 교회의 결정을 발표하는 성명을 게시했다. 교회는 지난 5일 자발적으로 탈퇴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동 목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LGBTQIA+(성소수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모든 교인 안에 하나님 생명의 충만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분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ECC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슬퍼하면서도 우리 공동체에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방식에 대해 희망을 품고 교단을 떠난다"고 했다.

CP에 따르면 ECC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9백여개 교회로 이루어진 교단으로 1885년 스웨덴 이민자들에게 의해 설립되었다. 교단 웹사이트는 "북미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민족 교단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퀘스트교회는 유진 조 목사 부부가 11명의 교인과 함께 집안 거실에서 모임을 갖고 시작했으며 2001년 10월 14일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며 정식 출범한 교회다.

규모가 커지면서 퀘스트교회는 멀티 사이트 대형교회였던 마르스 힐의 4만 평방피트 규모 부지를 9백만 달러에 구입하여 2015년 9월 13일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교회는 수년에 걸쳐 ECC의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견해에 반대되는 성소수자 운동을 점점 더 지지하게 되었다.

ECC는 지난해 10월 퀘스트 교회와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의 어웨이큰 교회가 교단 명단에서 비자발적으로 제명되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 결정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에서 열린 예정인 '게더 2023'(Gather 2023)으로 알려진 EC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다.

ECC는 1996년 발표된 결의안을 인용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이성 결혼, 결혼 안의 충실함, 혼외 금욕등이 기독교 표준을 구성한다. 우리가 부족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의 삶을 고칠 것을 권유받는다"고 덧붙였다.

ECC는 비자발적으로 퀘스트교회와 어웨이큰 교회를 제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무겁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CC는 "매년 적지 않은 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발적으로 언약을 떠나기로 선택한다. 이것은 언약의 입장과 일치할 수 없다고 느끼는 교회를 위한 규범적인 경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두 교회는 자발적으로 탈퇴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권인 '언약 총회'(Covenant Annual Meeting) 이전에 행동을 방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 대선 출마한 펜스 전 부통령 "급진 좌파가 미국 약화시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 트위터

미국 마이크 펜스(Mike Pence) 전 부통령이 7일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앤케니에서 "나는 미국 국민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아직 미국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함께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가 누릴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과 가족들 앞에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를 돌아보며 "더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이룬 진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당과 국가는 링컨이 언급했듯이 우리의 더 나은 본성의 천사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펜스 전 부통령은 "오늘날 미국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급진 좌파는 국내외적으로 미국을 약화시켰다"며 "아메리칸

드림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지고 있다. 임금은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남부의 국경은 공격받고 있고, 자유의 적들이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대를 초월한 미국의 가치관이 그 어느 때보다 공격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진과 드래그퀸(보통 여장한 게이를 지칭)이 아이들에게 동성애 책을 읽어주는 사진 등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보다 낫다.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국가를 방어하고 국경을 확보할 수 있다.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를 균형 예산으로 되돌릴 수 있으며, 자유를 수호하고 미국인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낙관론을 펼쳤다.

그러나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와 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5%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9%)에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유력 주자인 론 데스덴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최소 10명이 예비 후보로 꼽힌다.

강혜진 기자



### “北에 수감된 기독교인 약 7만 명... 가혹한 학대 직면”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가족들은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2022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가혹한 환경과 신체적 학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단체인 코리아퓨처(Korea Future)는 “북한 정부가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종교용품을 소유하거나 종교인과 교제하는 개인에 대해 체포와 고문에 대한 구금, 강제 노동, 추방 및 생명권 거부 등 심각한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151명의 기독교인 여성과의 인터뷰가 포함된 이 단체의 2021년 보고서는 강제 노동, 성폭력, 자의적 구금, 고문 및 추방이 가장 흔한 형태의 학대와 함께 종교적 탄압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 준다.

북한을 탈출한 이들은 “북한의 교육 자료는 반종교적이며, 기독교 선교사에 대해 ‘강간, 장기 적출, 살인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들’로 표현한다”고 했다.

북한의 헌법은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산 독재 정권은 그 증거로 평양에 건설한 교회를 언급하지만, 미 국무부 보고서는 “이러한 교회는 단지 외국인인 위한 전시물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머니즘을 믿는 이들에게도 차별이 적용돼 이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나 재교육 시설에서 6개월에서 수 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

한 피해자는 “(공무원들이)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열심히 일만 하게 했다. 물만 마셔도 계속 설사를 하고, 몸무게는 35kg에 불과했다. 지금 몸무게가 60kg인데 그때는 해골 같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감자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고 장기간 불편한 자세를 취했고,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하거나 그러한 징후를 보였다”면서 “기독교인의 경우 15년에서 종신형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가혹한 형을 선고받는다”고 지적했다.

2009년에는 종교 생활과 성경 소지를



2000년대 초에 순교자의소리가 입수한 사진. 두만강 인근에 위치한 이 시설은 북한의 처형장으로 보인다.

이유로 한 가족이 체포됐는데, 2세 아이를 포함해 모두 정치범수용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 미국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의 즉각 처형하는 것을 포함해 학대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2021년 보고서 “조직적 박해 -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 문서”에서 “2020년 문서화한 위반 행위는 기독교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과 2021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 생존자, 목격자,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의 모든 기독교 신자와 기관을 말살하려는 캠페인은 잔인할 정도로 효과적이었으며, 국가안전보위부, 중국으로 뺀어나가는 정보원 네트워크, ‘탈출이 불가능한’ 정치범수용소, 학교, 직장, 이웃을 통해 종교 생활을 저지하는 교육 및 조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자유는 김일성의 가르침에 따라 북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김정일-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체계 수립을 위한 10대 원칙’으로 알려진 문서에 종속되고 이에 의해 지배된다”고 덧붙였다.

수 년 동안 북한은 오픈도어가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해왔다. 강혜진 기자

### 나이지리아 플라니족, 목회자 포함 기독교인 43명 학살

사망자 대부분 여성 및 노약자... 부상자 4명 제때 치료 못 받아 숨져

지난달 나이지리아 중부의 나사라와 주의 두 기독교 마을에서 무슬림 플라니 목동들이 목회자와 그의 아내를 포함한 기독교인 43명을 살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카루 카운티 타카라피아 마을의 복음주의 성리교회(ECWA) 다니엘 단베키 목사와 그의 아내는 11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공격으로 인해 주민들과 함께 사망했다.

ECWA 지역 교회 협의회 의장인 단라 디 엔도 목사에 따르면 인근의 관자 지구도 플라니 목동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타칼라피아 주민인 리비누스 단다우라는 모닝스타뉴스에 문자 메시지로 “공격 중 사망한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 어린이, 노인”이라며 “무장한 무슬림 테러리스트들과 목동이 마을에 매복하는 동안 목격자를 향해 무작위를 총을 쏘서 대부분 탈출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인 아이작 다부는 “부상자들이 케피에 있는 공중 보건 시설인 연방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거의 매일 케피 연방 의료센터에 가서 플라니 목동과 타칼라피아의 테러범들에게 공격 당한 우리 주민들을 확인했기에 참담한 심경으로 이 글을 쓴다”면서 “놀랍게도 어떤 정부 관리도 이들을 돕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 기독교인 희생자들은 의료비가 쌓여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고 있으며, 이 비용을 상환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고 호소했다. 다부는 병원에 있던 부상자 중 4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 타칼라피아와 관자 마을 주민 43명의 시신은 13일 나사라와 주 정부와 보안 기관 관계자에 의해 집단 무덤에 매장되었다고 밝혔다.

다부는 “살해된 43명의 기독교인들은 지역 사회의 생존한 친척들의 동의 없이 집단 매장을 당했다”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살해된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공격자들을 피할 수 없었던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의 한 매체는 이번 공격이 (기독교인) 농부의 땅에 소를 방목한 목동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농부가 목동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목동은 대나무칼로 농부를 공격했고, 자기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농부가 목동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Open Doors)의 2023년 세계감시목록(WWL)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2022년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 수가 5014명으로 세계 1위였다. 또한 기독교인 납치(4726건)를 비롯한 성폭행, 괴롭힘, 강제 결혼,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에서도 1위였으며, 신앙에 기반한 이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정과 기업이 공격을 받았다.

2021년과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교회 공격과 난민이 발생했다. 2023년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힘든 50개국 중 나이지리아는 전년도 7위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6위로 상승했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OC예배 11:00  
2부 예배 오전 9:45 OC예배 12:00  
3부 예배 오전 11:30 OC예배 1:00  
금요성경연구회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 36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창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부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일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재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교회(토요일) 오전 9:0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벘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대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이우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아침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사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일영예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11:15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최순환 담임목사**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조선 초대교회의 중국 대륙 선교와 그 결실

조선 초대교회는 1907년 독노회가 결성되면서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이 실행되어 먼저 국내인 제주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조선 반도의 지경을 넘어 만주 대륙(동북삼성)선교를 결정하여 해외 선교를 본격화 하였다.

1912년에 드디어 조선 전국에 많은 교회가 곳곳에 설립되어 여러 노회가 세워짐으로 총회가 결성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어 독노회가 아닌 총회 차원에서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이 산둥성은 일찍이 독일의 조계지이기도 하였기에 독일을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의 사역지이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지방은 유교의 본 고장으로 공자의 고향인 곡부(曲阜)가 있는 지역이었다.

조선 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한 복음의 빛진 교회였기에 선교의 중요성과 비중을 크게 두었다. 광대한 중국 대륙중 산둥성에는 바다와 접한 교역지인 칭따오로부터 약 160킬로 떨어진 내양현 지역을 미 북장로교가 조선인 선교사에게 넘겨주기로 함으로 1913년 박태로와 김영훈과 사병순 등 세 명의 선교사를 중국 산둥성으로 파송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중국 본토인들을 대상으로 조선인들이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이 있었기에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의 민족이 자신들에게 서양의 종교를 전한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조선인들에 대해 경시하는 월등 의식을 갖고 있었고 서양인들에 대해서는 아편전쟁과 의화단 사건으로 인해 배척 의식과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1913년 11월 가족을 대동하고 산둥성으로 파송된 박태로 선교사는 불행하게도 질병으로 순직하였고 나머지 두 명은 본 파송교회와 연락도 없이 1917년 철수하면서 산둥성 선교는 큰 난관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대신하여 1917년에 방효원과 흥승환 목사가 이어서 파송되었고, 1918년에는 박상순 목사가 파송되었다.

1923년에는 김순호 여선교사가, 1932년에는 의료선교사인 안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중호를 지마성에 파송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한편, 내양 지역에는 애린학교와 지바에 애도학교를 설립하여 의료와 교육 사역을 확장하였다. 이어서 1937년 방지일 선교사가 제5대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이들 외에 세브란스의 전을 졸업한 의사 선교사가 가세되어 선교가 활성화 되었다.

중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한자 문화권에 있었기에 중국어를 쉽게 습득하여 본국인들과 용이하게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인 선교사들의 열정이 있었고 같은 동양인이었기에 서양선교사들 보다는 친화력 면에서 훨씬 유리하였기에 그곳의 미국 선교회에는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선교지를 조선 선교사들에 인계함으로 선교지가 더욱 확장되었다. 1923년에는 591명의 세례자가 있었고, 815명의 기독교인과 25개의 예배 처소와 19개의 사립학교와 436명의 학생이 있었다.

이처럼 조선인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어서 조선교회의 중국 선교는 매우 활성화되어 조선교회의 선교 역사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1933년에는 중국인 목사 4명과 장로 13명, 집사 39명과 교회 성도가 1,324명이었고, 교회수가 51개소와 초등학교가 7개소와 노회도 자체적으로 결성되는 큰 결실을 거두었다. 이어서 1942년에는 35개의 교회와 세례교인 1,716명의 교세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를 중국이 1978년 12월에 등소평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으로 다시 그 땅에 복음의 씨가 움트며 싹을 내게 되어 지하교회가 지상교회로 나오면서 교회의 백화제방(百花齊放) 시대로 진입하였다.

인문학이라는 말은 현대인에게 아주 친숙한 말입니다. 요즘 인문학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그야말로 인구(人口)에 화자(膾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로마의 정치가요 사상가요 인문학자인 키케로(Cicero)입니다. 키케로가 인문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라틴어는 Humanitas(후마니타스)입니다.

키케로는 그의 저서 '웅변가에 관하여(De Oratore)'에서 인문학이라는 말을 웅변가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후마니타스(Humanitas)라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리엑스(R. Riecks)는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를 연구하여 그 다양한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리엑스가 정리한 후마니타스의 개념은 인간 본성, 온건함, 위엄, 명예, 정의, 덕, 유머, 세련, 지혜, 절제, 겸손, 형평, 측은지심, 선의, 통금, 베풀기 좋아함 등등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망라했습니다.

키케로는 이런 후마니타스를 로마의 웅변가 양성 교육과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시의 웅변가는 정치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키케로의 후마니타스는 로마 지도자 양성과정이었었습니다. 키케로는 로마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길러 주는 교육, 즉 인간미 넘치는 인간을 길러 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마니타스(Humanitas)를 사용했습니다.

키케로는 '웅변가에 관하여'에서 헬라의 웅변가 양성과정을 비판했습니다. 키케로에 의하면 헬라의 웅변가 양성과정은 실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미가 없는 웅변기술자들을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이런 헬라 수사학과 웅변술의 약점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으로 후마니타스를 제안했습니다. 키케로는 조국 로마의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인간다운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후마니타스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키케로가 헬라의 웅변가의 교육을 비판한 것은 아주 획기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적인 일입니다. 로마는 헬라를 정복하고 세계로 영토를 확장해 가면 갈수록 더욱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허승일 교수는 로마가 확장되면서 헬라 정신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은 로마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교육 위해 헬라의 노예 출신 교사들을 활용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로마의 귀족들이 헬라 교육과 문화에 열광했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헬라의 교육을 숭상하여 헬라 노예 출신의 문법 교사들에게 자녀 교육을 맡겼지만 헬라 노예 출신 선생들의 교육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 문법 교사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또 한편에서는 자신들 학교 특성화를 위해 개별적 교육 체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의 중구난방(鑿口難防)을 초래했습니다. 또 건강한 철학이 없는 교육이 로마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사설학원의 난립으로 교육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한 로마 사회는 몇 가지 자구책을 강구했습니다. 첫째 수사학교 폐교 결정이었었습니다. 기원전 92년 로마의 손술이었던 크랏수스(Crassus)는 수사학교의 폐교를 명령했습니다. 그때 크랏수스는 당시 수사학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학 교육이 인간이 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혀의 훈련만으로 뻔뻔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둘째, 키케로와 같은 로마의 지성인들은 새로운 로마식 교육체계 개발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케로의 후마니타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키케로는 헬라 웅변가 약점을 보완한 로마의 웅변가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로 후마니타스(Humanitas)를 제안했습니다. 키

케로는 헬라의 웅변교육이 혀의 훈련에만 집중해서 뻔뻔하게 말만 잘하는 말꾼 양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로마의 웅변교육은 지성과 인간미를 갖추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후마니타스(Humanitas/인문학)의 등장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키케로가 헬라 수사학(웅변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수사학 교육과정을 후마니타스(Humanitas)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후마니타스는 헬라어에서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는 파이데이아(Paideia)의 라틴어 의역이라고 합니다. 파이데이아는 교육이라는 의미로 소피스트나 웅변가를 양성 교육과정이었었습니다. 헬라 사회에서 파이데이아는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기하학, 음악, 산수와 천문학 등의 과목들을 망라한 교육과정이었었습니다.

로마 시대 수사학을 연구한 안재원 박사는 헬라의 파이데이아를 자유 교양 학문으로 헬라 시민이 알아야 할 교양과 지식의 전수로 보았고 로마의 후마니타스는 지도자를 기르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헬라 교육(파이데이아)의 목표가 일반 시민의 양성이었다면 로마 교육(후마니타스)의 목표는 철학(정신)을 가진 지도자 양성이었습니다. 헬라 교육은 지식과 교양에 역점을 두었고 로마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의 양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로마의 키케로가 주장한 인문학(후마니타스/Humanitas)은 기본적으로 지성과 인간미를 갖춘 '지도자' 양성과정이었었습니다. 인간미를 갖춘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로마의 인문학이었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교양과 인격을 갖춘 삶을 위해 인문학(Humanitas)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현대 대학 용어로 표현하면 교양필수 과목입니다. 근대 대학교육은 인문학을 교양 필수로 정했습니다. 교양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전공이 무엇이건 간에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인문학은 교양필수 즉 교양있는 삶을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인문학 후마니타스(Humanitas)는 인간미와 교양을 갖춘 삶의 필수 과목입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총회원, 기독교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60227-3454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정회원, 온캠퍼스 수업, CANVAS 기반 온라인수업, 실시간 화상수업,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 지원(Col & Pell Grants)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p>“모든 예식에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amp;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p> <p><b>박은성</b> 담임목사</p> <p>Acts Global Church</p> <p>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p>	<p>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p> <p><b>이미애</b> 담임목사</p> <p>Angel's Church</p> <p>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p>	<p>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p> <p><b>한주봉</b> 담임목사</p> <p>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p> <p>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p>	<p>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p> <p><b>이현욱</b> 담임목사</p> <p>His Presbyterian Church</p> <p>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p> <p><b>송재봉</b> 담임목사</p> <p>LA사랑의 동산교회</p> <p>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b>박지상</b> 담임목사</p> <p>LA하나교회</p> <p>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b>JOE HONG</b> 담임목사</p> <p>Metanoia Church of Southbay</p> <p>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p>	<p>주일예배 오전 10:30</p> <p><b>ISAIAH LEE</b> 담임목사</p> <p>New Start Community Church</p> <p>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p>
<p>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p> <p><b>장경호</b> 담임목사</p> <p>Only One Church</p> <p>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p>	<p>주일예배 오후 2:00</p> <p><b>제임스김</b> 담임목사</p> <p>The Well Church</p> <p>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p>	<p>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남상권</b> 담임목사</p> <p>남가주 어노인팅교회</p> <p>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p> <p>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b>김상현</b> 담임목사</p> <p>In Christ Christian Church</p> <p>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p> <p><b>안상희</b> 담임목사</p> <p>남가주늘사랑교회</p> <p>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p>	<p>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p> <p><b>오상규</b> 담임목사</p> <p>남가주예수사랑교회</p> <p>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p> <p><b>김창곤</b> 담임목사</p> <p>남가주은혜선교회</p> <p>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210)713-3006</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일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차권희</b> 담임목사</p> <p>늘워장로교회</p> <p>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p>
<p>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p> <p><b>강은덕</b> 담임목사</p> <p>늘새론교회</p> <p>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p>	<p>주일예배 오후 12:30        이른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b>김영일</b> 담임목사</p> <p>더섬기는교회</p> <p>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p>	<p>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p> <p><b>정용암</b> 담임목사</p> <p>랜초한인교회</p> <p>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p>	<p>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7:30</p> <p><b>신용석</b> 담임목사</p> <p>로고스라이프교회</p> <p>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b>정달성</b> 담임목사</p> <p>리뉴얼새힘교회</p> <p>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스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p> <p><b>김명구</b> 담임목사</p> <p>말씀위의교회</p> <p>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저녁 7:30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p> <p><b>서민수</b> 담임목사</p> <p>방주교회</p> <p>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p>	<p>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p> <p><b>신현우</b> 담임목사</p> <p>생명과사랑의교회</p> <p>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p>
<p>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p> <p><b>지동근</b> 담임목사</p> <p>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p> <p>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D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p> <p><b>윤혁</b> 담임목사</p> <p>브림장로교회</p> <p>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p>	<p>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p> <p><b>장동훈</b> 담임목사</p> <p>선민교회</p> <p>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p>	<p>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p> <p><b>임상훈</b> 담임목사</p> <p>섬김의교회</p> <p>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p>
<p>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p> <p><b>정찬군</b> 담임목사</p> <p>예심교회</p> <p>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p>	<p>주일예배 주일학교 &amp; Youth 오후 1:30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p> <p><b>김지연</b> 담임목사</p> <p>원웨이침례교회</p> <p>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p>	<p>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b>최주철</b> 담임목사</p> <p>은혜가샘솟는교회</p> <p>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p>	<p>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amp; Youth 오전 11:45</p> <p><b>표희곤</b> 담임목사</p> <p>은혜샘교회</p> <p>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b>류연주</b> 담임목사</p> <p>주님의숲교회</p> <p>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p>	<p>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b>김성규</b> 담임목사</p> <p>주백성교회</p> <p>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p>	<p>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p> <p><b>양수용</b> 담임목사</p> <p>초대교회</p> <p>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p>	<p>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p> <p><b>권혁래</b> 담임목사</p> <p>카마리오열방교회</p> <p>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p>
<p>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b>조인</b> 담임목사</p> <p>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p> <p>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p>	<p>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 오전 10:00</p> <p><b>류광환</b> 담임목사</p> <p>커넥션교회</p> <p>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p>	<p>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김용근</b> 담임목사</p> <p>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p> <p>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p>	<p>주일예배 오후 1:00</p> <p><b>정하이</b> 담임목사</p> <p>크로스교회</p> <p>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p>
<p>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인제문(요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영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피뎀위임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p> <p><b>오충성</b> 담임목사</p> <p>하늘기쁨의교회</p> <p>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p>	<p>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중보기도회 오전 6:00</p> <p><b>양국민</b> 담임목사</p> <p>함께하는 주은혜교회</p> <p>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b>김요한</b> 담임목사</p> <p>Global United Church</p> <p>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p> <p><b>양홍규</b> 담임목사</p> <p>굿프렌즈교회</p> <p>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p>

강준민 칼럼

# 내려놓음은 삶의 예술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내려놓음은 삶의 예술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려놓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려놓기보다는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내려놓기보다는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은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제가 내려놓음의 글을 정기적으로 쓰는 이유는 내려놓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자포자기 아님입니다. 오히려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을 때 우리의 에너지와 집중력은 놀랄 만큼 커집니다.

내려놓음은 비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나, 쌓아두고 있는 것 가운데 쓰레기와 같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일 년이 지나도록, 아니 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비우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구더기가 생깁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아주 소중한 것까지 쓰레기 때문에 쓸모없게 됩니다. 비움이 있을 때 여백이 생깁니다. 여백이 생길 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비움이 있을 때 채움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쓰레기만 비워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한과 질투와 시기와 복수심과 분노와 쓴 뿌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신비로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려놓음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끔 우리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입니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해 주길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시 68:19).

그래야 그날그날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잘 관리해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은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최상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에너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날 남을 판단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지나치게 부러워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부러워하다보면 질투하게 됩니다. 또한 남을 부러워하다보면 자신이 소유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망각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예술은 질투를 존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노 요코는 “질투를 존경으로 바꿔라. 그러면 존경했던 것이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 우리는 누군가

를 변화시키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훈련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속의 분노가 누그러들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대로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는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남을 변화시키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내려놓음은 힘을 빼는 예술입니다. 무엇이든 힘이 너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눈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운동을 하거나 연주를 할 때 힘이 너무 들어가면 최상의 솜씨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설교도 육의 힘이 너무 들어가면 듣는 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최상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은 힘을 너무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에너지가 넘쳐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이란 그렇게 쉽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이 천국을 맛보는 길입니다.

송재호 칼럼

# 인정중독증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질병이 존재한다. 그런데 오늘을 특별히 우리가 걸리지도 알지 못하는 증상 중 “인정 중독증”에 대하여 함께 나눠 보길 원한다. 먼저 “인정 중독증”이란 어떤 증상인가?에 관하여 나눠보자. 물론 “인정 중독증”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하지만 그 현상을 찾아보면 “인정 중독증”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대하여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안정감

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인정 중독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혼자만 아니다. 어찌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세상을 살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심지어는 갓난 아기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된 노인에게도 사 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내가 한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까? 등을 고민을 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이 모든 일이 극히 평범한 일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결절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인정 중독증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특별히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그로 인한 결과

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 중독증상”은 성경에 인물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막을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시는 듯 하니가 순종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이 지난 후에도 소식이 없자 자신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최초로 세워진 왕 사울도 자신보다 다윗을 사람들이 더 인정하는 듯하자 시기로 가득차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럼 “인정 중독증”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먼저 우리는 인정 중독증을 알게 되면 “시기”와 “증오심”으로 우리 심령이 병들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비교의식이 생겨 나와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놓고 신경 전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남과 비교해 볼 때 덜 인정받는 것을 받아들이고 태평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행동과 생각에 젖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은 바로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경고하셨다. 결국 “인정 중독현상”은 바로 “외식”하는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다스리지 못함에서 생겨난 질병. 그렇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인정 중독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다.

오늘도 세상에서의 인정보다 천국에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크(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슬라방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 생명의 길 예수님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제49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와 진영민 전도사의 결혼식 등, 한국 방문의 일정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도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느끼게 되는 것은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많고 복잡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와 모르는 길들이 너무 빨리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디를 갈려고 하면 길을

몰라서 헤매는 시간이 늘고 트래픽과 주차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갈수록 많아지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길'은 좋은 나쁜든 우리의 삶에서 계속 선택하고 누구나 마주하는 것으로, 땅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과정도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길'은 한자로 도(道), 즉 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 것이나 진리라고 하지 않듯이, 아무 것이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거리에서 길을 잃으면 찬찬히 오던 길을 다시 되짚어가면 되지만, 인생의 여정에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성공을 바라다면 분이 되는 올바른 사람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종착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누구의 분을 따르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눈 오는 길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남긴 자국은 드디어 뒷사람의 길이 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올바르게 인생의 길을 걸어간 앞선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요14:6)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히 인생의 길이 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하신 후, 진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길, 영생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승리의 길, 복된 길을 가게 되

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요6:5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찬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생명의 약속들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9:22, 막5:34 ; 10:52, 눅7:50 ; 8:48 ; 17:19 ; 18:42)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고종필 칼럼

# 교육철학 박사의 교회와 교육 이야기(2)



고 종 필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철학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학교에서의 좋은 교사는 학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교사였다. 교사의 인성이나 학문적 실력이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낸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칭했던 듯 싶다.

교회에서의 좋은 교사는 정의(definition)가 조금 달랐다.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며, 그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소위 "친구 같은 교사"를 좋은 교사의 범주에 넣고는 했다. 그러다보니,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높여주는 교사를, 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성격 좋은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여겼다.

콕즈(Combs)는, "좋은 교사"는 자신이 맡은 과목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춘, 학습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히쑹과 워스(Hessong and Weeks)는 교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건전한 인성을 가진 낙관적이며 자신감 있는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한다. 패터슨(Patterson)은, 시대에 따라서 좋은 교사의 규정이 달라지지만, 현대에는 학생의 학습을 잘 도와주는, 여러 방면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말한다. 학자들에게 좋은 교사는 지식이 많고 성격 좋은, 학교와 교회 모두에서 적용이 되는 교사를 가리킨다.

오래 전 석사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다. 교수님은 많은 자료를 스크린에 보여 주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말을 첨가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 수업이 끝나갈 즈음, 교수님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ppt slides)에서 20년 전의 날짜를 발견하고 조금 실망을 했다. 교수님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자료로 수업을 하고 계셨

던 것이다.

학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과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교수님은 교수 생활 초창기에 만들었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셨던 것이다.

박사 과정 학생이었을 때, 클라우스 이슬러(Klaus Issler)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는 한번도 배운 적이 없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무슨 뜻인지 여쭙었다. 교수님의 말씀은 매 학기마다 수업 준비를 위해 공부를 하시고 강의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었다. 같은 과목의 수업을 진행해도, 교수님은 여전히 새로 강의안을 구성해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셨다. 많은 도전이 되었다.

교회 학교의 교사는 말그대로 "교사(teacher)"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교사"로 생각하지 않고 "나이 많은 친구"로 여기는 듯 싶다. 그래서 학생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저 담당 교역자의 설교를 되풀이 해서 말해 주거나, 소그룹 성경공부를 위해 준비된 자료를 읽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그들이 어렸을 때에도 같은 교육

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교사는 "평생학습자(Lifelong student)"여야 한다. 어느 교사도 자신이 받은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가진 지식에 만족하며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학습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교사로서 학습자의 자리를 겸할 때, 교사로서의 소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평생 학습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가 평생 학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다. 학생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제임스 윌호이트(James Wilhoit)는 말한다. 교회 학교 교사가 성경에 대한 학습자의 위치에 서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은 "성경 교사(Bible teacher)"이면서 "성경 학습자(Bible student)", 더 나아가 "평생 성경 학습자(Lifelong Bible student)"가 되어야 한다.

## 성경쉽게읽기 특강

성경 일천번 이상 통독하신 강사가 아래와 같이 '성경쉽게읽기'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7월 6일, 13일, 20일, 27일 매주(목) 오후 7시(4주간)
- 장 소: Kairos University Campus (얼바인 분교 2층) 2681 Walnut Ave, Tustin, CA 92780
- 등록인원: 40명 선착순(인원이 차면 다음 기회에)
- 등록비: \$50 (교재 및 Fellowship)
- 등록방법: 949-304-8912 이메일: bible100plus@gmail.com
- 강 사: 데이비드 리 성경읽기선교사
- 주 최: 성경쉽게읽기선교회 (본 선교회는 성경읽기에 관하여만 가르칩니다)

## 스포켄 반석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

\*  
워싱턴주 스포켄에 위치한 반석침례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남침례교단 회원이거나 가입가능한 자, 미국 내 합법 체류자 \*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받을 인품과 성실함이 있으신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목사님/사모님) 2. 자기소개서 (가족소개 및 가족사진) 3. 설교동영상 또는 음성파일
- 지원방법: 이메일로만 접수받습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 Jayyon4@gmail.com

반석침례교회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어린이 사역,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

# 교회 떠나는 청년들 대책? 자녀 양육과 어린이 사역에 답이



복음과 양육으로 세워지는  
어린이 사역  
재레드 케네디 | 정성욱 역  
디모데 | 238쪽

어린이 사역 위축의 시대,  
복음 중심의 사역을  
지속해나갈 방안을  
제시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고 약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을 환영합니다!  
어린이를 섬기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레드 케네디라는 생소한 저자가 쓴 책이지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어린이 사역에 특별한 애정을 쏟고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마티 마초스키(한국교회에 초대되어 강연도 여러 번 했다), 상담 사역과 저술로 알려진 디팍 리주, <겸손한 뿌리>를 쓴 여성 저자로서 복음주의 안에 확실한 영향력을 미친 한나 앤더슨 등이 추천한 책이다.

<복음과 양육으로 세워지는 어린이 사역>이라는 제목을 보며, 급변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복음 중심의 어린이 사역 방향을 정하고 본질을 개혁하는 데 꼭 필요한 무언가를 줄 것 같아 이 책을 집었다. 재레드 케네디는 남침례신학교 출신으로 가스펠-센터드 패밀리(Gospel-Centered Family) 편집장이기도 하다.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어린이 사역은 주일학교(출생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약 10세까지) 사역이다. 8장 '점진적인 성장'에서 저

자 케네디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신생아부터 10세까지 초기 아동 발달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인지적·관계적 발달이 아이의 영적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린이 사역 방법을 어떻게 바꾸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심리 철학의 사상을 어린이 사역에 도입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특정 연령대 아이들에게 발견되는 일반적인 특징과 그에 따른 교육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가령 유치원(4-5세) 연령의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짜증을 내고, 그러다가 그것을 얻기 위해 규칙을 어기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고, 그때 어린이 사역은 "아이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에 집중한다. 어린 아이때부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재레드 케네디가 복음으로 그린 어린이 사역의 큰 그림은 환대, 가르침, 제자 훈련, 선교라는 목표를 지향한다.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환대하신 아이들이 어린이와 같은 자였음을 기억하며 아이들을 환영하는 것이 '환대'이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반드시 복음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이다.

어린이 사역은 단지 환대와 가르침에서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대위임령을 목표로 삼는다. 모든 민족(어린이가 여기 포함된다)을 제자로 삼는 것이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면, 훈련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로 삼기 위해 세상에 나가 복음을 말과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선교'이다.

또 한 가지, 이 책이 보여준 균형 감각과 정확한 평가에 감사가 된 부분은 분할적이고 프로그램 중심적인 사역, 가정 중심 사역, 가정 통합 사역, 가정 지원 사역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홈스쿨에 매진하는 사람은 공교육이나 가정 중심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쉽고,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역에 힘쓰는 교회는 홈스쿨이나 대안학교 등으로 아이에게 최선의 복음 중심 교육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고 인정하면서 양쪽의 단점을 서로 보완해 주고, 장점으로 서로를 심기다면 교회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하나의 목적 아래 한마음 한 뜻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케네디는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 주일학교 교사나 부모가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원리를 제시했다. 성경 구절을 읽고 원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목적과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줄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한 후(성경 신학적 접근), ①필요 ②하나님의 역사 ③복된 소식 ④믿으라는 단계로 내용을 정리하여 가르치라고 조



©Pixabay

언한다.

'필요'에서는 본문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대상을 찾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구원이 필요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 '복된 소식'에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본문에서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려주는 것, 마지막으로 '믿으라'에서는 복된 소식을 믿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게 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라고 노래하며,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

이라고 했다(시 128:3-4). 단지 자식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이라 말할 수 있지만, 자녀가 언약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된다는 것이 진짜 복일 것이다.

모든 부모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떠나는 것이다. 재레드 케네디의 <복음과 양육으로 세워지는 어린이 사역>은 교회가 어떻게 아이를 환영하고 제자로 양육하고 세상에 파송할지 유의한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교회의 위기로 보는 내부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종종 그 문제의 시작이 복음 중심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어린이 사역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것 같다.

케네디의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어린이 사역이 정말 복음적인지 점검해 보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세대로 빛이신 일에 올바른 방식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FI PLUMBING**  
213-434-8947

##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야곱 판 루이스달의 <나덴의 풍경>

# 종교개혁을 예술 영역에서 구현한 화가, 야곱 루이스달

모든 피조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천지만물 섭리 주관자 밝히는 네덜란드 신앙고백 루이스달, 같은 맥락서 인간 삶 하나님 호의 암시 한 치 빈틈 없이 신적 섭리로 통치되는 세계 표현

존 월포드(E. John Walford)와 크리스토퍼 조비(Christopher Joby)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야곱 루이스달(Jacob Ruisdael)의 풍경화에 숨겨진 함의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존 월포드는 “내러티브나 상징적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세계가 본질적으로 고유한 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도덕적이라기보다 영적이라고 본 것이다.

크리스토퍼 조비 역시 네덜란드 공화국의 종교적인 맥락에 따라서 그의 풍경화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예술로 묘사할 수 있다는 칼빈의 주장에 따랐으며, 루이스달의 작품이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에 소개하는 야곱 루이스달의 <나덴의 풍경>(View of Naarden, 1647)은 신적 창조를 강조하는 그의 종교관을 보여준다. 루이스달은 그림에서 한적한 시골을 배경으로 수평적 구도의 풍경화를 제작하였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들판에는 햇살이 쏟아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화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하늘이 대부분의 화면을 장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그림은 종종 하늘을 화면의 3분의 2 가량 할애하여 공간적으로 시원스럽게 보이는 효과를 연출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하늘이 극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낮은 스카이라인으로 하늘을 크게 돋보이게 하는 방식은 동시대 화가들, 즉 안 판 호연(Jan van Goyen), 헤라클레스 세헤르스(Hercules Pietersz Seghers), 필립 코닝크(Phiph Konnick)와 같은 1640년대 화가들의 영향을 반영한다.

실제로 이 작품을 제작할 무렵 루이스달이 암스테르담을 무대로 활동하였던 필립 코닝크의 그림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코닝크는 광활한 하늘로 창조주 하나님과 신적 섭리를 유난히 강조한 작가여서, 그와 교류가 있지 않았는지 추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17세기 네덜란드 사회는 일반적으로 자연을 신적 계시로서 이해하였다. 울파두스 에켈만(Ulphardus Ekelman)의 저술 <자연과 경험의 책으로부터의 교훈>(Lessen uit het Boek der nature en ervarenheit, 1661)에는 하늘에 대한 기술 중 인상적인 부분이 나온다.

“인간과 같이 고귀한 피조물의 눈앞에 그

러한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었는지, 하나님과 같은 장인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증거가 어디 있겠는지, ... 그 어떤 견해도 이 아름다운 하늘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감각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야곱 루이스달의 경우 하늘은 그의 예술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에게 하늘 없는 풍경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작품의 상수(常數)로 자리잡았다. 숲, 강, 모래언덕 및 시골길, 파노라마, 폭포, 해변, 바다, 겨울장면, 마을 풍경, 야상곡, 스칸디나비아 및 이탈리아 풍경 등 무엇을 그리든, 하늘은 빠짐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이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즉 자연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면, 루이스달은 그러한 인식을 자신의 예술 영역에서 구현한 화가이다.

17세기 네덜란드 미술계에서 기독교적인 정신이 작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점검해 보면, 루이스달이 어떤 이유로 이런 극단적인 구도를 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술한 바 있다.

“말하자면 이 말은 우주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복장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후부터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영광의 훈장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시해주셨다는 말과 같다.

예언자는 또한 같은 곳에서 능란하게 광대한 하늘을 왕궁에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시 104:3-4).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영광이 위에서는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흔히 하늘을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부른다.(시 11:4) 칼빈에게 하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목상하기에 적합한 대상이었다.

또한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시 모든 인생을 보심이어”(시 33:13)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이 계시하는 이미지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려



야곱 판 루이스달의 <나덴의 풍경>, 캔버스에 유채, 1647, 마드리드의 티센 보르네미사미술관.



야곱 판 루이스달의 <해변가의 밑발을 끼고 있는 풍경>, 캔버스에 유채, 27x61cm, 1660년대, 로테르담 보이에만스 판 뷁닝언미술관.

는 것은 불합리하며 어리석은 일이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저버리시거나 혹은 운명과 우연에 맡기시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그것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고 기술한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그분은 그 만드신 피조물을 섭리하시는 천지만물의 주관자임을 밝힌다. 당시 사람들 역시 이런 신념체제 아래 삶을 영위해갔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시인 콘스탄틴 호이겐스(Constanijn Huygens)는 “창조주의 선하심이 모든 모래언덕 위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루이스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인간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수확을 거두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호의 덕분임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덴의 풍경>에서 대지를 물들이는 파사로운 햇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빛나는 노랑’(the radiant yellow)은 전통적으로 ‘하늘’과 결부되며, 그러므로 그 빛이 대지를 적

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나덴의 풍경>은 순전한 지형학적 묘출(pure topographical description)을 넘어 창조주가 ‘만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킨다.

루이스달의 풍경화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살피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사계절의 변화, 탄생과 소멸, 구속의 아름다움 등 한 치 빈틈도 없이 진행되는 신적 섭리로 통치되는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44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4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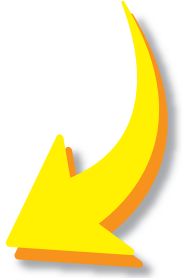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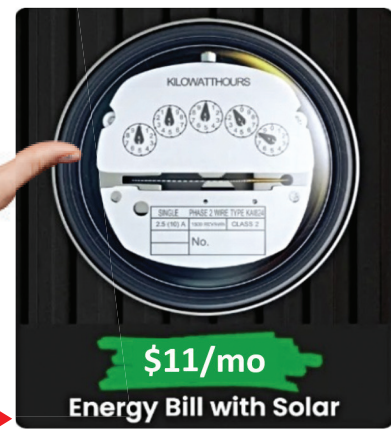


#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SCAN ME

**100%  
Made in  
USA**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소개 해주신 분께 시공 완료 후 500 불을 드립니다**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2~3달 안에 설치** 가능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